시인의 마을

봄바람이 전해주는 소식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사드락 사드락 속삭이는 봄바람이 전해주는 소식이 궁금하다
빼꼼히 내미는 여린 새싹의
부끄러움 가득한 얼굴이 반갑다
오늘도 까치는 나무에 싹이
트고 있다고 목청을 높인다
베란다 너머 메마른 단풍나무
가지에도 생명체가 움터 온다
알 수 없는 출발점에서, 도심의
봄은 벌써 터를 잡은 모양이다
그렇게 봄이 오면, 살구꽃이
만발하던 그리운 고향길을
걸어보련다

친구가 없어도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고향이다
반겨주는 이 하나 없어도
외롭지 않으리라는 씀씀하다
하루에 시외버스 한 번 가고
오던 먼지만 가득하던 비포장
신작로다
아직도 이웃 마을 병만이 형과
아랫집 삼순이의 데이트
발자국이 남아 있을까
아련한 추억의 그 길에도, 미소
가득 봄은 오고 슴슴한 하루가
저문다

봄이 오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본다
책꽂이에 질서 없이 갇혀 있던
최근 배달된 시집에서 봄과
마주한다
손에 잡힐 듯 황방산 자락이
눈에 들어오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내린다
내리는 소리마다 사각사각
속삭이는 봄바람이 불어오면
구수한 향기 가득하다

-똑, 톡, 또르르, 또르르,
또르르, 톡, 똑, 또르르, 톡,
톡 ……
-똑, 톡, 또르르, 또르르,
또르르, 톡, 똑, 또르르, 톡,
톡 ……

구수한 향기 너머, 봄이 오는
소리에 오늘도 나는 커피를
내린다
살구꽃이 만발한 고향길
다녀온 봄바람 콧노래에 빠져
커피 한 잔 건넨다
사드락 사드락 속삭이는
봄바람이 전해주는 소식이
궁금하다

‖시(詩)를 담다‖

계절의 출발은 참이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그런데 요즘은 농촌보다 도심의 봄이 빨리 오는 것 같다.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어는 겨울에도 쉬게 단념 수 있는 것이 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서글픈 마음이 편지 않다.

사드락 사드락 청소를 하다가 베란다 창문을 열어젖혔다. /속삭이듯 봄바람이 전해주는 소식이 궁금/하다. /빼꼭히 내미는 여린 새싹의 부끄러움 가득한 얼굴이 반갑/다. /아침마다 울어주던 까치도 나무에 싹이 트고 있다고 쓰여/ 댄다. /베란다 너머 메마른 단풍나무 가지에도 생명체가 움터/ 온다.

/살구꽃이 만발하던 그리운 고향길을/ 걸어본다. 친구가 없어도, 반겨주는 이 하나 없어도, 하루에 시외버스 한 번 가고 오던 먼지만 가득하던, 아직도 이웃 마을 병만이 형과 아랫집 삼순이의 데이트 발자국을 찾아가는, /아련한 추억의 그 길에도/미소 가득 봄은 오고 슴슴한 하루가 저물어/ 간다.

세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가수가 있다. 바로 감성이 충만한 가수 이른세다. 그의 콘서트를 찾아 내지르던 노래 중 '봄바람'은 서정인 가사와 율동적인 음이 잘 어우러져 듣는 이들을 즐겁게 떼창을 하던 기억이 새롭다.

특히, 나얼의 독특한 보이스와 이른세의 음색이 조화를 이루며 봄이 오는 길을 함께 걷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가수 이문세의 또한 매력이 있는 노래다.

넘쳐나는 것이 봄의 향기다. 그렇지만 저마다 간직하고 느끼며 즐기는 봄은 다양한 것이다. 공통분모를 찾으려 하지 말자. 그냥 느낌이 오면 그대로, 봄이 오는 길과 동행하자. 부족함이 없다. 살기 좋은 시절이다.

사 설

완주 구이면 노인일자리사업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2022년 전북 완주군 구이면 노인일자리 사업' 이 본격화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곳 노인일자리 사업 어르신들은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구이면은 최근 36명의 어르신을 선발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출범했다. 시작에 앞서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참여자의 발열 체크는 물론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워크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구이면 소재지, 모악산 자락, 구이면 둘레길 정비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2022년 올해 완주방문의 해'를 맞아 관내 모악산과 구이저수지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위한 환경 정비에 주력한다. 이 사업은 구이면을 비롯 완주군을 고품격 관광도시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근로 의욕을 가진 건강한 신세대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평균 수명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문제는 능력과 의욕이 충분하지만 은퇴 후 30~40년 기간을 무직 상태로 보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 삶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은퇴 전후 준비 및 노인 생애 교육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주체는 정부, 지방 자치단체, 노인 인력 운영 센터, 민간사업 수행 기관이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대한노인회의 경우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구직 희망 노인의 취업 상담과 알선, 취업 연계 조정,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 자전거타기운동본부 김종영 회장

전주 자전거타기운동본부 김종영 회장(78)은 도내 자전거타기 운동의 산증인이다. 그는 평생을 자전거타기 운동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

전주 자전거타기운동본부는 건강 증진은 물론 거리 환경 정화, 전주천 수질 살리기, 매연 없는 도시 만들기 등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주 자전거타기운동본부는 1998년 7월 17일 설립됐다. 설립 계기에 대해 김 회장은 네덜란드 사례를 들고 있다. 네덜란드는 이미 오래전 산업화가 진행됐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승용차 보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승용차의 편리한 매력에 빠져든 것이다. 네덜란드는 실제로 1970년대에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았다. 그러면서 결국 거리에서 자전거가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교통 체증과 사고, 대기오염으로 도시가 험악하게 변해갔다. 김종영 회장은 네덜란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자전거타기 운동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그 뒤 본격적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9월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생활체조 발전을 위한 제24회 전주시장배 우리가락 생활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8년 6월에는 전북녹색자전거봉사단을 이끌고 새만금 사업 성공 기원에 나섰다. 만경강 유역 비점 오염 저감으로 '청정 만경강을 만들자'는 시민 모임을 갖고 거리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김종영 회장은 "고향인 임실 오수에서부터 짐빠(운송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자전거를 타온 것이 지금 내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자전거는 지구 환경 뿐 아니라 만인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웰빙의 아이콘이다. 사람과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전주가 살기 좋고 아름다운 자전거 도시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개시

경찰에서는 온택트(Ontact)시대 민원처리 활성화를 통해 국민편의 증진과 코로나 시대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로 증명서의 신청,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난해 3~12월까지 개발하였으며,

행안부 전자증명서 구축사업과 연계, 민원신청이 많고 즉시 발급 가능한 민원에 대하여 지난 1월 한 달간 검수, 시범운영을 마치고 2.1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대상 민원은 운전경력증명서(국문), 운전경력증명서(영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수사 사건접수증 등 총 5종이다.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찰민원모바일" 앱 설치 후 실행하여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 신청하면 해당 증명서가 즉시 발급되어 모바일 기기에 저장 되어 전자증명 현출 및 타 기관 전송 등 활용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웹스토어, 원스토어에서 "경찰민원모바일" 검색 후 다운로드 하여 휴대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경우 경찰민원 웹에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실행하면 되고,

휴대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경찰민원포털 접속→ 이용안내→ 모바일앱 이용안내→ Agent 설치→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앱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실행 순으로 설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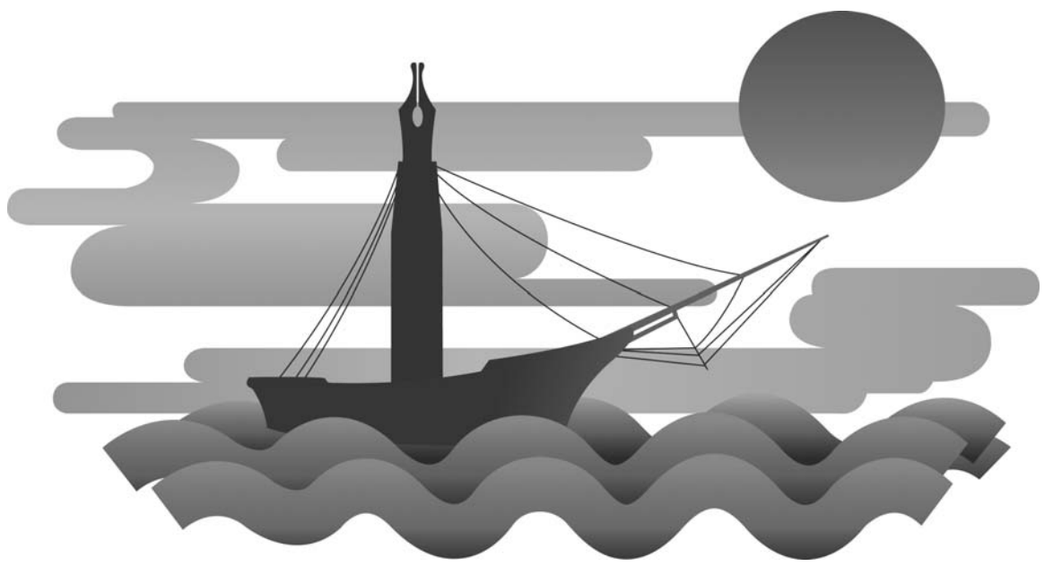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민원실에 배너가 비치되어 있어 확인 가능하며, 앞으로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원하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근수 무주경찰서교통관리계장경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홍콩 TV에서 방송되는 우크라이나 침공 뉴스

24일(현지시간) 홍콩의 한 전자제품 판매장에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 소식을 알리는 TV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보호를 명목으로 특별 군사작전을 결정하고 "외부 간섭이 있을 경우 이전에 본 적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